

“몸과 마음에도 단청 하세요”

광주 증심사, 18부처님 점안·대웅전 단청불사 회향

이즈음, 광주의 진산 무등산 증심사를 참배하면 색다른 감흥을 느낄수 있다. 광주를 상징하는 증심사(주지 진화)가 대웅전을 곱게 단청하고 새롭게 부처님을 모셨기 때문이다.

증심사는 10월 24일 송광사 방장 보성,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과 각 사암 스님, 유태명 광주 동구정장 등 지역 기관장, 시민, 불자 등 5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웅전 단청불사 회향 및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보성 스님은 법에서 “부처님 계시는 법당은 곱게 단청되었는데, 우리의 마음과 몸은 얼마나 단청되고 있는지 살펴볼 아야 한다”며 “제대로 단청하기 위해 게으르지 말고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화 스님은 “이번 단청은 치밀하면서도 은은한 빛이 나도록 6개월에 걸쳐 진행된 걸작”이라고 밝혔다.

증심사는 또한 이날 법회에 앞서 대웅전 외벽 포위에 석가모니불, 문수보살 등 총 열여덟 구의 불보살상을 조성하고 점안했다. 특히 이날 회향한 대웅전 단청은 오방색



광주 증심사는 대웅전을 곱게 단청하고 새롭게 부처님을 봉안해 10월24일 회향 및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을 중심으로 한 원색위주의 단청에서 탈피해 원색과 간색의 적절한 조화로 화려하지만 튀지않게 했다. 또한 장엄하면서 은은한 이미지를 담아 참배객들이 편안한 느낌을 갖도록 했다.

이번 단청은 불교미술가이자 문화재 단

청 기술자인 정경문 씨가 맡았다.

한편 증심사는 2002년 오백전 해체복원 불사를 시작으로 대웅전 보수, 원통전 단청 불사로 도량을 장엄하고 각종 전선 지하화, 오수처리시설 등을 갖춰 사찰환경을 정비했다.

이준엽 기자

광주 원각사 가을음악회 성황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제2회 원각 가을음악회를 개최했다.

광주 총장로축제 일환으로 열린 이번 음악회는 유명작가 초청 강연 및 전시회, 7080추억의 포크송 페스티벌, 국악과 양악이 어울리는 퓨전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17일 열린 작가와의 만남에는 ‘임자로 가는길’의 저자 정찬주 씨가 나와 불교문학에 대한 강연과 싸인회를 가졌다.

이어 20일 열린 음악회에는 대중가수 이용 씨가 특별출연해 주옥같은 가을노래를 선보이며 가을밤을 수놓았다.

이준엽 기자

공주 영평사, 구절초 축제



공주 영평사(주지 환성)가 10월 9-22일 구절초 꽃 축제인 ‘제7회 장군산 예술제, 꽃나라 가을소리’를 개최했다(사진).

축제기간 동안 잔불가공연된 나유타의 작은음악회, 티벳 스님들이 모래로 그리는 만다라 시연, 지역주민 노래자랑, 시낭송회, 사찰음식 전시회와 원목 스님의 불화전시회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이외에도 구절초 사진촬영대회, 구절초 천연염색, 공주대 학생들의 구절초 음식전시회, 구절초꽃차 무료시음회 등 축제의 주제인 구절초에 대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됐다.

혜철 대전 총부지사장

음악·석두·화봉 선사 탐비 건립

근대 한국불교의 큰 스승인 음악 혜건, 석두 보백, 화봉 유영 선사 탐비 건립이 착공했다. 이날 제작식은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을 비롯해 스님과 문도, 불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준엽 기자

‘통합불교연 새마을운동’ 창립

‘통합불교연회 새마을운동’ 창립법회가 10월 20일 광주 시내 한 채식부에서 열렸다.

광주전남지역 각 사암 스님과 재가불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천자암 조실 환안 스님은 법어를 통해 “깨달음을 향해 마음을 자세히 바라보는 불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준엽 기자

광주에 인도박물관 들어선다

광주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도박물관과 인도문화원이 개설된다.

아시아문화교류재단(이사장 현장)은 광주 윤립동에 인도박물관(사진), 문화원을 설립하고 오는 11월 3일 개관식을 갖는다.

이날 개관식에는 파라타 사타티 주한 인도대사 부부와 지역기관장, 아시아 각국의 문화관계자가 참석해 인도박물관 탄생을 축하한다.

무등산 증심사 집단시설지구에 자리한 인도박물관은 연건평 600평 3층 건물이다. 박물관 1층은 인도 문화원, 인도음악 및 인도영화

카린 마하비라상이 눈길을 끈다.

인도박물관 고조자 관장은 “인도에 관심 있거나 방문을 앞둔 이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고 박물관을 소개했다.

특히 광주에 들어서는 인도박물관은 민간박물관으로 지역 불교계가 주도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보성 대원사에 티벳박물관을 설립한 현장 스님이 인도유물을 기증하면서 지역불자와 문화인들이 뜻을 모아 아시아문화교류재단을 설립했고, 박물관과 문화원을 탄생시켰다.

현장 스님은 “광주를 중심으로 아시아 문화 예술인



아시아문화교류재단, 3일 문화원과 나란히 개관

유물 800점 전시... 영화·음악감상실 등 들어서

감상실, 명상음악 카페가 들어서고, 2층에는 인도박물관, 아시아 아트마켓, 고려불화실이 자리한다. 또한 3층에는 300석 규모의 공연장과 교육관, 외국인 숙소, 재단 사무실을 갖추고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인도박물관은 현장 스님이 수집한 800여점의 인도유물을 목조각관, 금속공예관, 인도세밀화, 아시아불교문화관 등으로 나누어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정부와 협의해 인도의 국보급 유물을 기획전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관 전시에는 인도 세밀화와 춤추는 시바상, 자이나교 24대 티르탕

공공예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재단측은 광주시에 함께 무등산 생태복원사업이 완공되는 오는 2008년경 인도박물관에서 우제길 미술관, 증심사로 이어지는 구간을 아시아문화의 거리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인도박물관은 개관을 기념해 3일 오후 2시 개관식과 인도무용단 초청 공연을 펼친다.

또한 인도 문화원은 내년부터 아시아 문화해설사 아카데미를 개설해 아시아 지역 문화해설사를 양성할 예정이다. (062)224-0045

이준엽 기자

국화와 100가지 차 만났다

청주 우암산에 위치한 대한불교수도원(원장 설곡)은 10월 24일 세계 각국의 100가지 차를 시음하는 행사를 열었다. 행사장인 도량에는 원장 설곡 스님이 가꾼 국화꽃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국화와 100차의 만남’을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차와 꽃의 향이 가득한 가을산사 분위기를 자아내 신도들과 사랑을 담은 일반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세계 각국의 100가지 차는 사랑을 찾는 이들에게 무료로 제공됐다.

원장 설곡 스님은 “청주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대한불교수도원을 찾을 수 있도록 문화도량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혜철 대전 총부지사장

광주 불교 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충남동부지국 : (010)3069-3170

광주사암련 17대 회장 지각 스님 선출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향)는 10월 24일 사암련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제17대 회장에 동원사 주지 지각 스님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는 광주 지역 사암 스님 60여명이 참석했다.

지각 스님은 당선 인사에서 “사암 스

님과 신도들의 뜻을 모아 빛고을이 불국경토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천운 스님(대흥사 조실)도 격려사를 통해 “근래 들어 광주 불교가 급성장하고 있다”며 “불교와 지역발전을 위해 사암연합회를 중심으로 사부대중이 화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 신임회장이 추천한 대각사 주지 도산 스님을 상임부회장으로 추선했다.

효봉 스님 40주기 추모제

순천 송광사(주지 영조)는 조계종 초대 종정 효봉 스님 40주기를 맞아 10월 23일 추모제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제에서 조계종 성수 스님은 “효봉 스님의 공부를 거울삼아 눈 안뜰이고 정진하는 대승이 되자”고 말했다.

추모제에 이어 참석대중은 효봉 영각에서 탑돌이로 효봉 스님의 뜻을 기렸다.

한편 이날 효봉장학회는 송광사 선원, 강원,울원에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보조사상연구원도 <정혜결사문 강외> 300권을 법보시했다.

이준엽 기자

청주 관음사 무심 스님 초청법회

청주 관음사(주지 현진)는 10월 23일 대전 무상사 국제선원장 무심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 무심 스님은 “무엇을 하든 마음자리에 들고나오는 생각들을 잘 살피고 동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음사 주지 현진 스님은 청주 서원대 교양학부 교수로 초빙 받아 올 2학기부터 ‘명상과 자아’ 강의를 한다.

혜철 대전 총부지사장

Interview “빛고을연등축제 문화재등록 추진”

“빛고을(光州)은 불교의 무량광(無量光)에서 나온 지명으로 정토세계를 뜻합니다. 이름 그대로 불국토가 되도록 지역 스님들과 불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현에 옮기겠습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새회장 지각 스님(사진)은 “광주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도들의 화합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사부대중이 함께 신명나는 포교를 펼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한 “임기중에 임의단체로

구성된 광주사암련을 사단법인화하고, 광주사암련이 주관하는 빛고을 연등축제를 광주시에 문화재로 등록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승가화합을 위해 △원로위원회 구성 △신행단체 등록 △각 구별 불교협회 활성화 △자문 및 전문위원회를 결성하며, 교육과 문화사업으로 △신행단체 수련회 △소식지발행 △세미나 개최 △불교문화행사 주관에 적극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각 스님은 1967년 장성 백암사로 출가한 이래 광주 동구불교협회의회장, 광주광산경찰서 경승실장을 맡고 있다.

이준엽 기자

元 · 氣 · 回 · 復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蓼 長腦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을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이원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약자세,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하약 버거는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정체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지향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普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蓼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蓼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勿論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검정(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 山蓼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蓼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은 천중, 지중, 인중,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 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71, 누군가와 함께라면

선남선녀의 따뜻한 인연을 이어주는 혜철스님의 가을같은 맑은 이야기!

‘대성사 따뜻한 만남’이라는 새로운 범회를 통해 치녀총각 인연 맺어주기를 실천하는 혜철스님이 그 동안의 범문과 기고문, 그리고 시와 단상 등을 모아 엮었다.

세간의 일상을 담담히 담아내는 따뜻한 시선, 환경오염에 대한 애절한 안타까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마음가짐 등 대립과 투쟁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대한 절실한 사랑이 묻어난다.

대성사 주지 혜철 합장

인생은 나와 인연과 緣을 맺은 수많은 사람, 수많은 환경과의 공존의 길이다.

독자 한사람 한사람이 이 책의 주인공이며, 함께해서 행복하고 ‘누군가’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

국판/278쪽/12,000원
 운주사 |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02)926-8361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구입안내 : 온라인책방 **여시아론** 02)737-0695